

사회적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에서 표출되는 표현들의 기호적 속성과 의미의 함축성:

- 주요 사회 의제에 관한 트위터 내용들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백선기*

I. 서론: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오늘날 사람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기존 미디어는 물론 뉴미디어를 넘어선 사회적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불리는 것이 주요 네트워크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SNS라고 칭하는데, 이는 인터넷 웹상에서 이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및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싸이월드(Cyworld)’, ‘미투데이(me2day)’가 대표적인 SNS 이며, 전 세계적으로는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마이스페이스(Myspace)’ 등이 알려져 있다.

이들 SNS는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네트워크로서, 자신의 취향과 활동을 공유하거나, 타인의 취향과 활동을 공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위한 사회관계의 형성에 중점을 둔 서비스¹⁾이다. 이에 대해 보이드와 엘리슨은 “SNS란 개인의 프로필을 구성하고 개인들 간의 관계를

*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1) A Social network service focuses on the building and verifying of online social networks for communities of people who share interests and activities, or who are interested in exploring the interests and activities of others, and which necessitates the use of software(IWGDPT, 2008).

통해 형성된 연결을 공유하고, 그 연결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웹 기반의 서비스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Boyd & Ellison, 2007). 최근에는 이들의 네트워크 구조가 확대되고 통신기기의 발달로 인해 사회의제들에 대한 개인들의 의견개진이 가능해지면서 과거에 비해 훨씬 강력한 파워를 행사하게 되었다 (박노일·정지연, 2011; 이미나·김활빈·김옥현, 2011).

이른바 페이스북과 트위터로 대변되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의사소통이 바로 좋은 예다. 이들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iPhone과 iPad같은 통신기기의 발달로 인해 스마트폰에서도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 졌다. 이같은 모바일 기기를 토대로 한 SNS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은 SNS를 새로운 저널리즘 매체로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이동훈, 2010; 신현기·우지숙, 2011; 최진호·한동섭, 2011).

특히 트위터는 2006년 3월에 개설되어, 스마트폰의 개발과 보급의 확산에 힘입어 이용자들의 수가 급속도로 확대 되었다. 2009년 3월에는 약 21만명 정도가 이용하였는데, 1년이 지나자 이용자의 수가 수십 배로 증가하였다(김병선, 2011, p.58). 트위터는 단문메시지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특정 메시지를 올리게 되면 이에 대해 자유롭게 반응하게 된다. 이들을 ‘팔로워어(follower)’라고 부르는데, 이들의 관계가 바로 사회적 네트워크의 근간이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팔로워어들을 지니고 있는가가 개인이 어떤 크기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가를 대변해 준다. 팔로워어들이 자신의 견해들을 추가하여 보내거나 반응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를 ‘리트위트(retweet)’라고 한다. 리트위트는 S-M-C-R 모델을 근간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유형의 피드백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피드백과의 차별성은 리트위트가 불특정 다수의 팔로워어들에 의한 것이란 점이며 감성적인 피드백이란 점이다.

최근에는 주요 사회의제들에 대해 감성적 반응뿐만이 아니라 이성적인 반응들이 제시되기 시작했다. 유명 기업가들과 일부 정치인들이 팔로워어

들을 통해 자신의 파워를 과시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특정 사회의제에 대해 자신들의 견해를 제시하고 나서 많은 팔로워어들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파워를 확인하고자 하는 현상이다. 이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담론으로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활용하기도 하고 140자라는 짧은 언어기호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트위터의 기호들은 한편으로 일상 언어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선전이기도 하고, 또한 보도 언어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는 SNS들 가운데, 트위터를 중심으로 하여, 어떠한 표현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그러한 표현들은 어떠한 기호들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 그들 기호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특정 의미들이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 기존 문헌 및 이론적 고찰

1. SNS의 공적 커뮤니케이션 기능

SNS는 기존의 블로그나 미니홈피 같이 개인들의 의사소통 공간임과 동시에 공적 커뮤니케이션 공간이기도 하다. 그런데 블로그나 미니홈피와는 달리 개인적인 활동이나 경험을 팔로워어와 공유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개별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나 특정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느낀 것들을 SNS에 올려놓으면서 감정의 공유를 시도하고자 한다. 여행을 한다거나, 영화를 감상하면서 느낀 감정들을 공유하고자 하거나, 개인적 삶의 여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이나 환희 등을 올리기도 한다. 또한 이를 통해 팔로워어들과의 결속력(solidarity)도 형성하고자 한다(김병선, 2011; 최진호·한동섭, 2011).

이같은 멘트자와 팔로워어들 사이의 네트워크는 개별 상황의 공유를 넘어서 공적 사항들에 대한 공유로 발전하게 된다. 사회내에 중요한 일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한 의견이나 감정을 공유하게 되며, 일정한 담론을 형

성하게 된다. 최근에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는 영화 <도가니>에 대한 의견수렴이 대표적인 사례다. 소설 <도가니>를 영화화한, 광주의 인화학교에서 발생했던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교직원들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 SNS를 통해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였으며, 당시에 행해졌던 법적 조치의 미진함에 대해서도 분노하게 만들었다.

이와 같이 특정 사회적 의제에 대한 공적 담론의 구성에 SNS의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는 SNS의 독특한 커뮤니케이션 양식에서 비롯된다. 특히, 트위터의 경우 최초에 멘트자가 의견을 올리게 되면, 그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팔로워들이 리트윗하게 되고, 이는 또다른 리트윗을 불러 일으켜 짧은 시간내에 특정 의제들에 대한 담론이 생성된다.

이러한 트위터의 공적 담론의 생성기능은 특히 정치 분야에서 자주 발생한다. 정치인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생산하는 주요 의제가 대중적 담론으로 발전되기를 바란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팔로워들을 지니려 하고, 기존 미디어의 힘을 빌리지 않고 SNS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이나 주장을 개진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들의 팔로워 수가 그들의 정치의제 설정 능력과 비례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트위터 이용자들이 끊임없이 사실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일종의 집단지성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위터의 경우 집단지성만큼이나 군중심리적 측면도 강하다. 민감한 정치 의제들이 발생했을 경우,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SNS를 보다 선전적으로 활용한다. 최근 서울시의 초·중교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과 그에 따른 국민투표에서, 민주당과 진보진영의 시민단체들에서 활용했던 SNS는 그 폭발적인 위력을 발휘하였다. 나쁜 투표'라고 명명된 기호가 SNS를 통해 확산되었으며, 이러한 명명에 공감한 사람들은 투표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견해도 상당량 존재한다. 그 이유는 트위터 글자 수 제한에 따른 약점이 있고, 트위터가 신변잡기식 수다,

가벼운 주제에 대한 대화, 속보 전달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 중요하고 심각한 주제에 대한 담론구성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Java, et. al, 2007; 신현기·우지숙, 2011).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로는 트위터의 체계적 속성으로부터 제기된다. 트위터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체계가 아니라 한 사람이 견해나 감정을 피력하면 팔로워들이 반응을 보내는 일방향의 커뮤니케이션 체계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트윗되는 사실성을 담보할 수 없어 공적 담론 형성의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기도 하다(설진아,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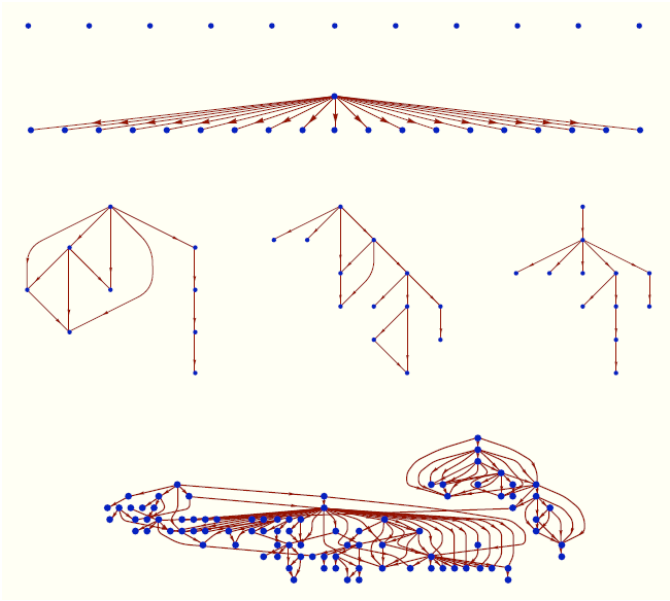
이에 대한 재반론 역시 만만치 않다. 예를 들어 트위터의 글자 수의 제한은 하이퍼링크를 통해 보다 긴 글쓰기가 가능하고(이광석, 2010), 트위터에 특정의 기호를 붙이면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기호를 통해 '일 대 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 '#'기호를 통해 '다수 대 다수'의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있다(신현기·우지숙, 2011, p.52). 특히 일종의 채널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팔로우 기능에 있어서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점, 블록(block) 기능을 통해서 언제든지 보고 싶지 않은 상대의 글을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인용방식을 갖고 있는 수동 리트위트를 통해서 특정 글에 자신의 견해를 달아 유포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지적은 반박된다.

2. SNS의 공적 담론 구조: 트위터의 토론구조를 중심으로

SNS의 대표적 체제의 하나인 트위터의 토론구조는 기존의 인터넷 매체의 토론구조와는 다른 특성을 지닌다. 신현기·우지숙(2011)은 인터넷 게시판의 토론구조와 트위터의 토론구조를 비교한 흥미로운 연구를 시도하였다. 인터넷 게시판의 토론은 누군가가 올린 글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댓글을 달면서 시작된다. 그러나 트위터의 토론은 누군가가 특정 주제에 대해 견해를 밝히면, 팔로워들이 댓글을 달면서 시작된다. 특히 팔로워 수가 많은 또 다른 팔로워가 리트위트를 하면 동시다발로 확산되어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토론에 참여하게 된다(Bakahy, et. al, 2011, p.4;

신현기·우지숙, 2011).

<그림 1> Bakahy, et. al, 2011, p.4 참조



<그림 2> 신현기·우지숙, 20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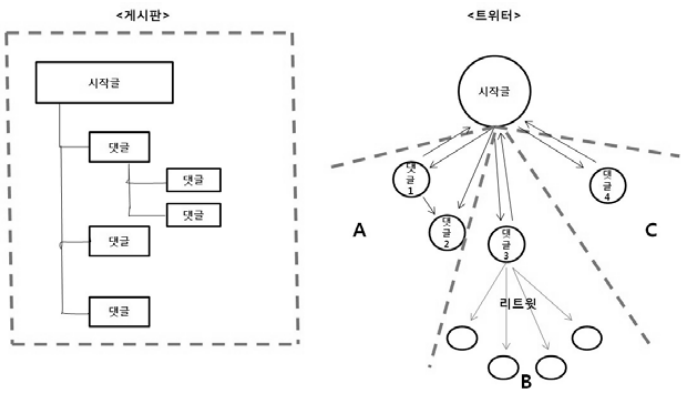


그림1은 트위터의 토론구조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시작 글을 썼다고 할 때, A그룹, B그룹, C그룹의 집단들이 반응하고, 이들의 반응 여부에 따라 순식간에 특정 견해가 확산되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확산이 가능하려면 ‘팔로우잉(following)’이라는 중요한 과정이 매개되어야 한다. 그림을 누군가 시작한 글을 B그룹의 특정 팔로워가 리트윗하고, 그와 연계된 또 다른 팔로워들에 의해 확산된다. 여기서 확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리트윗인데, 즉 ‘RT’는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서 하는 수동 방식과 원글을 자신의 팔로워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자동 방식이 있다.²⁾ 여기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글은 댓글인 동시에 시작글로서 의미를 지닌다.

문제는 이러한 토론구조하의 의견확산이 과연 사회내의 공적 담론으로 연계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특정 사회 의제에 대한 최초 멘트자의 견해에 추종하거나 반대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특정인의 견해에 대한 반응이며 그에 따른 확산이지 다양한 견해들의 확산은 아니기 때문이다.

3. SNS의 공적 담론의 질적 수준

최근 SNS의 공적 담론의 질적 수준에 대한 관심이 많이 대두 되었다. 그러나 SNS 담론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일천하여 특정한 속성과 경향을 지녔다고 단언하기에는 이르다. 따라서 SNS의 공적 담론의 질적 수준을 파악하기 전에, 이전의 인터넷 웹상에서 전개되던 토론이나 담론의 질적 수준을 참조하면 많은 시사점이 있을 것이다.

웹 상에서의 토론은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이나 의견의 다양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토론 자체의 타당성과 타협도출의 성과는 미약하

2) 본래 트위터(twitter.com)는 이른바 자동 알티에 해당하는 무수정 배포 기능만 편의적으로 기능에 넣었으나, 관련된 애플리케이션들(twtkr.com 등)은 자신의 반응까지도 덧붙여 배포할 수 있는 수동 알티 기능을 갖고 있다.

다(윤영철, 2000). 토론의 내용을 보면, 주제연관성, 비차별성, 관용성, 합의지향성, 논리성, 방향성 등의 속성들 가운데, 주제연관성과 비차별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김종길, 2006). 더욱이 인터넷 상에서는 자기주장의 오류가능성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존중해주는 관용도가 아주 저조함이 발견된다(최영재, 2008). 또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할 때, 주장의 근거들을 제시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한혜경, 2006; 이창호·정의철, 2009).

그런데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트위터 상에서의 토론의 질적 수준을 연구한 신현기와 우지숙의 연구는 트위터의 토론의 질적 수준에 대해 의미 있는 결과를 밝혀냈다(신현기·우지숙, 2011). 이들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주제와 연관된 논의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전체의 96.2%), 주제와 관련 없는 논의들은 별반 없었다(전체의 3.8%). 그리고 주제와 연관된 논의들 가운데는 동조하는 것이 제일 많았고(전체의 80.6%), 의문을 제기하거나(전체의 7.5%), 보강하는(전체의 6.9%) 것은 적었다. 흥미로운 것은 비판이 제일 적다는 점이다(전체의 1.3%). 이는 트위터에서의 논의가 동조와 공감에 많고 비판은 적다는 점을 의미한다(신현기·우지숙 2011). 또한 견해를 피력하는 방식으로는 욕설이나 비하 및 감정적 비판은 예상보다 적었으며(전체의 15.0%), 대부분의 경우는 상당히 차분한 수준에서 매너있게 제시된다(신현기·우지숙, 2011, p.68).

또한 흥미로운 발견은 트위터 상에서의 논의가 시작한 글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견해는 담고 있으나 다른 견해들을 제시하는 경향은 아주 적다는 점이다. 이를 ‘이견에의 노출’이라는 항목으로 측정했는데, 결과적으로 전체 피드백의 4.6% 밖에 차지하지 않았다. 이는 트위터의 논의가 유사한 의견을 지닌 사람들 사이의 소통이기 때문이라고 한다(신현기·우지숙, 2011, p.68).

4. SNS의 사회의제 설정 기능

SNS가 사회의제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다양하게 열려있다. 조희정은 특히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트위터의 유형을 제시한 바 있는데, ‘정보제공유형’ ‘구전형’ ‘이슈제기형’ ‘네트워킹형’ 등이다. 정보제공유형은 트위터를 통해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의정활동을 전하거나 원하는 메시지들을 전달하는 유형이고, 구전형은 트위터를 개설한 이후 유권자들이 자유롭게 방문하여 그의 활동을 알게 하는 유형이며, 이슈제기형은 특정 이슈나 안전에 대해 주목하게 하는 유형이고, 네트워크 유형은 정치인, 유권자 및 언론 등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하는 유형이다(조희정, 2010, p.144-150; 최진호·한동섭, 2011, p.504-505).

미디어와 인터넷 연구에서는 미디어와 인터넷의 수용자의 인식에 대한 영향력으로 이들의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했다. 이를 미디어와 인터넷의 의제설정 기능이라고 한다. 이는 미디어와 인터넷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의제들이 수용자들의 인식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일컫는다. 미디어의 의제설정 기능에 대한 연구들은 수없이 많았으며, 최근에는 인터넷, 특히 뉴스의 편성을 통해 뉴스전달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인터넷 뉴스사이트에 주목하고 이들의 의제설정 기능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최민재·김위근, 2006; 이동훈, 2007; 양선희, 2008 등 참조).

이들 연구들을 근간으로 할 때, 기존 미디어와 같이 SNS의 의제설정 역시 가능하고 있으며, 영향력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SNS는 기존의 인터넷망과 디지털 기술방식을 이용하고 있지만, 기존의 인터넷과 다른 특징을 갖는다. 특히 우리사회같이 인터넷이 제공하는 의제들을 기존의 미디어들이 중요하게 취급하는 상황에서 SNS의 의제설정 기능은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비록 SNS가 체계적 한계와 커뮤니케이션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스마트폰과 연계되어 이동성의 장점이 추가되면서, 사회적 의제설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최진호와 한동섭의 연구(2011)는 이에 대해 흥미로운 점을 시사한다. 정치인 트위

터를 분석하면서 트위터가 의제설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시도했는데, 신문이나 방송 등 기존 미디어와 교류하면서 나름의 의제를 생성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최진호·한동섭, 2011).

Ⅲ.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SNS의 내용들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으며, 어떠한 기호들을 근간으로 구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특정 사회의제들에 대해 담론을 생성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여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특정 의제에 대해 SNS에서 표출되는 기호들은 어떠한 범주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 연구문제 2: 특정 의제에 대해 SNS에서 자주 표출되는 기호들은 어떠한 속성들을 지니고 있는가?
- 연구문제 3: 특정 의제에 대해 SNS에서 표출하는 기호들이 내재하고 있는 전제들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4: 이들 기호들의 범주, 속성 및 전제를 통해 SNS가 특정 의제에 대해 함의하는 바는 무엇인가?

2. 연구방법

이들 연구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중요한 사회의제들을 선정하였다. 최근에 사회적 주목을 받은 의제들 가운데, ‘서울시장 보궐선거’, ‘영화 <도가니>’, ‘권력비리’ 및 ‘경제위기’를 선정하였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2011년 10월 26일에 있었던 선거로서 여당 소

속 시장의 초중교의 무상급식에 대한 시민투표를 부쳤으나 서울시민의 1/3이 투표하지 않아 무효로 처리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여 치루어졌다. 이번 선거는 여당은 여성후보를 선정했으나, 야권은 시민단체 출신의 변호사를 후보로 선정하여, ‘여당 대 야권’의 대결이라는 독특한 선거구도를 형성하였다. ‘영화 <도가니>’ 의제는 2006년에 발생했던 광주의 청각장애인 학교인 ‘인화학교’에서 발생했던 교직원들의 성폭행을 다룬 영화 <도가니>의 사회적 파장과 관련된 의제다. ‘권력비리’의제는 최근에 밝혀진 여권 실세들의 부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들에 관한 것이며, 특정 기업인의 부정의 자금을 수년에 걸쳐 받아왔고, 이를 또 다시 다른 권력의 실세들에게 나누어 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경악하게 했다. ‘경제위기’의제는 2011년에 들어오면서 그리스의 부도사태와 이를 막기 위한 유럽의 대응방안들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생성된 의제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이들 의제에 관한 트위터의 내용들을 수집하였다. 2011년 9월 5일부터 2011년 10월 3일까지 이들 4가지 사회의제들을 다룬 트윗의 내용들을 수집하여 기호구성체로 다시 분류하였다.

셋째, 이들 트윗의 기호구성체들은 기호학적 분석방법들을 통해 분석하였다. 특히 기호학적 분석방법들 가운데 ‘범주화 분석방법’, ‘과어휘화 분석방법’, ‘전제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범주화 분석방법은 기호들을 특정 속성으로 범주화하는 분석방법인데, 트위터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기호들의 범주들을 발견하여 특정 의제들에 대한 경향을 파악하게 해준다. 과어휘화 분석방법은 특정 의제에 대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기호들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여 그것이 지닌 의미의 지향성에 대해 파악하는 분석방법이다. 트위터에서 다루어지는 4가지 의제들에 대해 어떠한 기호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특정 의제에 대한 의미의 지향점을 파악할 수 있다. 전제 분석방법은 특정의 견해가 전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그러한 견해가 나오

게 된 인식론적 배경에 대해 파악하는 분석방법이다. 전제 분석방법을 통해 트위터의 각종 기호들이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각각의 의제에 대한 인식론적 배경을 파악하고자 하였다(이들 분석방법들에 대한 상세한 고찰은 백선거, 1995; 1997; 2000; 2007a; 2007b; 2010 등 참조).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서울시장선거 트위터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 범주화, 과어휘화, 전제분석을 중심으로

서울시장선거 트위터 내용을 수집하기 위해, ‘서울시장’ ‘박원순’ ‘나경원’을 검색어로 사용하였다. 서울시장선거는 이념 대결인 동시에, 기존 정치 세력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대결이었으며, 남성과 여성의 대결이기도 했다. 이러한 다양한 대결 구도 속에서 트위터 이용자들이 어떠한 기호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면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는 정치적 갈등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1) 범주화 분석

〈표 1〉 서울시장 선거 트위터 범주화

	기정사실화 및 선언	인신공격 및 감정	대결강조 및 권력구도	의혹제기 및 정보
나경원 후보 비판	기사가 운전하는 경차 타면서 쇼 하는 것 인습 , 나경원 마티즈 승차쇼,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과 위선 , 삼성이 중소기업 매출을 비난하는 격,	국쌍(국민 쌍년), 오세훈 서울시장 최측근 떨거지 , 여자 오세훈, 진성호 꿀먹은 병어리 , 미친심장생설치류명 박이중자 , 주옥같은 어록, 참을 수 없	국민여론 무시 , 방송법 개악 발의, 자신이 몇평에 사는 지 모르면서 상대방 반박만 하면 이 건 된 코미디 , 판사 출신이고 사학재벌 딸 이라고 넓은 집	역수입 국산차 ‘아제라 3.8’ 어떻게? 차량 가격의 30%에 달하는 세금 면제, 나경원의 재산 40억 한나라당 최고위원중 최고수준,

	선거쇼, 빨간 다라, 위선의 그림자, 거짓말 시리즈, 마티즈 인증샷놀이, 경차출사쇼, 자위대포즈, 셀카놀이중	는 존재의 경박함, 헛소리 하나 불라고 팔로했는데, 모두 자기 팬인 줄 아나봐, 국쌍을 브랜드화, 글로벌호구,	에서 살아도 되고 박원순은 시민 운동하니까 좁은 집에서 살아야 하나, 뿌리 깊은 부자의 보통사람에 대한 멸시, 본인소유 자기집 버젓이 갖고 있으면서 월세 사는 사람 공격, 집가진자 횡포, 시민이 몰로 보이나	
나경원 후보 옹호				행복한 생활특별시
박원순 후보 비판	반대만 하는 시민단체출신, 북한인권 실패는 알 수 없다, 박원순은 가짜 변화세력, 박원순 인기는 개인기가 아니라 안철수 바람	빨갱이, 염불보다 잣밥에 환장, 꿈수 정치	지원은 받고 싶고 입당은 싫다면, 천목이 굵이고 훈장 짙은 금물	선거의 새 복병 (쏟아지는 박원순의 비리의혹-팔유학자금), 아는 지인이 순위동서
박원순 후보 옹호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간섭, 정책으로 가볍게 이겨봅시다, 열정과 실천력을 갖춘 범시민후보, 박원순표 상상력이 실현되는 우리의 서울	안철수 박원순과 시민의 행복을 융합, 책 많은 사람들의 비애,	여당과 보수언론이 변죽, 시민권력, 박원순이나 안철수는 수구에게 높	참여노동민주당 후보 (민주노동당 83.1% 민주당 76.3% 심지어 국민참여당 사람들은 97.5%가 박원순 후보님을 지지)
한나라당 입장 및 친박 입장	박근혜 서울시장 선거 소모품 대선 안 돼, 책임지는 변화, 정의로운 변화		박근혜 전대표를 사지로 내몰려는, 닭잡는데 소잡는 칼을 쓰면 안된다,	
민주당에 대한 평가	박원순은 민주당 후보, 민주당의 꿈수, 흔들리는 민주당, 민주당 자기혁신부터	불임정당, 한나라당이 보낸 트로이 목마 손학규 대표, 신부터	손학규-박원순, 서울시장 선거 공동운명체	
음모론적 시각	조중동이 스스로 '대기업=나쁜놈'으로 자리매김하	알밥	뒤에서 움직이는 모종의 세력, 올해의 히트상품은 외부세	

	는 역사적인 일		력, 조중동 신문의 박원순 때리기	
선거 및 정치현 실에 대 한 평가	정책 따위에는 아 무 관심이 없어, 한국 정치의 위기, 친일파의 위기, 사 학 재단의 위기 그 리고 이땅의 위정 자들의 위기	마땅히 뽑을 사람 이 없다, 믿음가는 사람이 드롭니다, 의미도 없는 서울 시장 선거	얼나게 쌈박질 , 대 선 전초전 , 시민의 힘 , 박근혜의 딜레 마 , MB정부 들어 첫 ‘선거 지원’, 시 민혁명에 의해 일 어난 이 불꽃	지 옷에 묻은 똥은 외면하고, “아니 면 말고” 식의 이 야기를 던져넣기

<표 1>에서 나타나듯이, 트위터를 통해 나타나는 언급들은 크게 여섯 범주로 분류된다. 가장 큰 범주는 ‘나경원후보 비판’과 ‘박원순후보 옹호’범주다. 이는 트위터가 진보 성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성적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우선, 나경원후보 비판 범주에서는 주로 ‘거짓’과 관련된 기호들이 나타난다. 이는 당시에 나경원후보가 일종의 선거이벤트로 수행했던 경차타기에 대한 비판으로 자극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나경원의 이벤트는 ‘쇼’‘거짓말’‘위선’등으로 범주화 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자위대 포즈’ ‘셀카놀이’ 등의 기호를 통해 평가절하하고 있다. 이는 인신공격성 기호를 통해서 두드러지는데, ‘국쌍’이라는 욕설을 직접적으로 사용해 ‘국민 쌍년’으로 표현하거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경박함’ ‘헛소리’ 등의 기호로 노골적인 인신공격을 하고 있다. 또한 계급 및 권력과 관련된 기호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나경원후보의 계급적 위치를 부각시킴으로서 서민에 반하는 후보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여론 무시’ ‘사학재벌 딸’ ‘보통사람에 대한 멸시’ ‘집 가진 자의 횡포’ ‘시민이 물로 보이나’ 등의 기호들이 대표적이다.

둘째, 박원순후보 비판 범주화는 빈도가 비교적 낮았고, 사용되는 기호 역시 감정적으로 표현되지 않았다. 비판적인 기호는 ‘반대만 하는 시민단체’식의 비아냥이 주를 이루고 있고, ‘박원순은 가짜 변화세력’이라는 박근혜의원의 발언이 주로 표출되었다.

한편, 박원순후보 옹호 범주화의 경우에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간섭’ ‘열정과 실천력을 갖춘 범시민후보’ 등의 긍정기호들이 많이 등장한다. 또한 박원순후보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도 방어적인 논리를 펴는데, ‘책 많은 사람들의 비애’라는 식으로 강남 아파트 월세 논란을 감성적 이해로 유도하기도 했다. 나경원후보의 비판 범주 다음으로 많은 빈도를 보이는 박원순후보의 옹호 범주는 대결을 강조하거나 권력 구도를 드러내는 측면에서 나경원후보 관련 표현과 큰 차이를 보인다. 나경원후보의 경우 상류층으로 구별하지만, 박원순후보의 경우 ‘시민권력’의 기호로 나타난다.

셋째, ‘한나라당 입장 및 친박 입장’과 ‘민주당 평가’범주는 트위터에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특이한 점은 한나라당의 선거에 대한 입장보다 박근혜의원과 관련된 표현이 많이 나타난다. 이 표현들에서는 나경원후보 지원과 관련한 부정적 견해가 제시되기도 했는데, 이러한 언급들은 박근혜를 ‘시장선거의 소모품’으로 보는 시각을 지니고 있고, 한나라당 지도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하면서 ‘사지로 내몰려서’ 행위로 인식하기도 한다.

한편 ‘민주당 평가’ 범주의 경우에 주로 비판적 표현이 많이 나타난다. ‘민주당의 꿈수’처럼 부정적 평가도 있었고, ‘민주당 자기혁신부터’의 기호처럼 변화를 요구하는 표현도 나타났다. 또한 감정적인 표현들도 나타났다. ‘불임정당’이라는 기호와 손학규 대표를 한나라당이 보낸 ‘트로이 목마’로 표현한 기호는 민주당에 대한 불신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장선거에 대해 평가하는 범주들이 있는데, 하나는 음모론적 범주이고 또 하나는 선거현실에 대한 평가 범주이다. 이 범주는 많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분석적인 트윗에서 많이 나타난다. 음모론적 범주는 전체적으로 친 박원순후보 성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범주는 다시 두가지 하위범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보수 진영이 음모를 펴고 있다는 것이고, 또다른 하위범주는 보수세력이 오히려 음모론을 제기하는데 대한 반발이다. 전자의 경우 ‘뒤에서 움직이는 모종의 세력’이 존재한다고 보고 음모의 일환으로 ‘조중동의 박원순 때리기’라는 기호를 첨가

한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에 이러한 음모를 펴는 사람들을 ‘알밥’이라는 기호로 표현하며 아르바이트로 글을 옮기는 집단으로 편취한다.

한편 선거현실에 대한 평가 범주는 전반적으로 냉소주의 경향을 보인다. 선거에 대해 ‘정책 따위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상황에 비판적이며, 개인적 차원에서 ‘마땅히 뽑을 사람이 없다’ ‘믿음 가는 사람이 드롭니다’ ‘의미도 없는 서울시장선거’ 등과 같이 냉소적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2) 과어휘화 분석

〈표 2〉 서울시장선거 트위터 과어휘화

		나경원 후보	박원순 후보
정책		행복한 생활특별시, 여자 오세훈	북한인권 실태는 알 수 없다
후보 개인	도덕성	마티즈 승차쇼, 거짓말과 위선, 그림자, 거짓말 시리즈, 마티즈 인증샷놀이, 경차출사쏘, 자위대포즈, 셀카놀이중	염불보다 잣밥, 아는 지인이 손위 동서, 비리 의혹, 책 많은 사람들의 비애
	계급성	관사 출신, 사학재벌 딸, 보통사람에 대한 멸시, 집 가진자, 재산 40억 한나라당 최고위원중 최고수준	빨갱이, 월세 검증
시민 참여			시민의 행복을 융합, 열정과 실천력을 갖춘 범시민후보, 시민의 힘, 참여노동민주당 후보, 시민혁명
언론 평가		박근혜의 딜레마	박원순 때리기

<표 2>에서 나타나듯이, ‘후보 개인’에 대한 평가에 과어휘화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나경원후보의 경우가 더욱 그러한데, 경차를 타고 서민행보를 보여주는 일종의 정치이벤트에 대한 부정적 과어휘화가 대표적이다. ‘마티즈 승차쇼’ ‘마티즈 인증샷놀이’ ‘경차출사쏘’ ‘자위대포즈’ ‘셀카놀이중’ 등의 기호들이 과다하게 나타났고, 이는 다시 ‘거짓말과 위선’ ‘그림자’ ‘거짓말 시리즈’ 등 기호들과 연계되었다.

후보 개인의 검증에 있어서는 서울시장 후보가 얼마나 친서민적인지를 판단하는 근거들이 제시되었는데, 여기서도 나경원후보의 계급성이 부정적으로 부각되었다. 나경원후보의 자본가 계급성을 강조하는 기호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는데, 나경원후보의 사회적 위치를 가늠하는 기호로 ‘판사 출신’ ‘사학재벌 딸’ ‘집 가진자’ ‘재산 40억’등이 과다하게 나타났다.

박원순후보의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아내가 대기업의 인테리어 사업을 수주한 의혹에 대한 기호들이 나타났는데, 과다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또한 강남 월세 주거 논란에 있어서도 ‘책 많은 사람들의 비애’라는 식의 옹호적 기호가 나왔을 뿐 박원순후보에 대한 과어휘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대로 시민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기호들에서 박원순후보에 대한 기대가 주로 나타났는데, ‘시민의 행복을 융합’ ‘열정과 실천력을 갖춘 범시민후보’ ‘시민혁명’ 등 기호들이 많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나경원후보의 개인속성에 대한 인신공격적 기호, 박원순후보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 기호들이 과어휘화로 나타났다.

3) 전제 분석

〈표 3〉 서울시장선거 트위터 전제

	전제
선거의 성격	책임지는 변화, 정의로운 변화, (정치, 친일파, 사학재단, 위정자의) 위기, 세상을 바꾸는, 대선 전초전, 시민의 힘
시장의 자질	서민을 위한 시정, 믿음가는 사람 드림,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시민을 위한 서울
박원순 지지	인신공격보다는 정책으로 가볍게 이겨봅시다, 시민권력, 안철수가 박원순과 시민의 행복을 융합, 참여노동민주당 후보, 무소속
나경원 비판	거짓말과 위선, 여자 오세훈,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경박함, 국민여론 무시, 사학재벌의 딸, 집 가진 자, 시민이 몰로 보이나

서울시장선거 트위터는 다음의 전제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첫째, 이

번 선거가 정치 지형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는 전제다. 서울시장 선거를 단순히 서울의 행정 책임자를 뽑는다는 의미를 넘어 미래의 정치 지형도를 예측하고, 대통령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칠 중요한 정치이벤트로 보고 있다. 둘째, 서울시장은 서민을 위하고 민심을 줄 수 있는 후보여야 한다는 전제다. 이 전제는 민주정치에 있어서 당연한 전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서 정치인의 자질과 관련된 전제가 추가적으로 첨부된다. 그것은 시장의 자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유용한 검증 잣대는 도덕성과 계급성이라는 전제다. 다시 말해 후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며, ‘서민을 위하는’ 서민계급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전제다. 셋째, 박원순후보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서민의 편에 가깝다는 전제다. 그로 인해 박원순 지지자들은 의혹들에 대해서 ‘조중동의 박원순때리기’라고 받아들이며, ‘뒤에서 움직이는 모종의 세력’을 상정한다. 넷째, 박원순후보에 대한 믿음과는 반대로 나경원후보에 대한 불신을 전제한다. 주로 나경원후보의 정치이벤트로서의 경차시승을 비판 대상으로 했는데, 이러한 행위를 ‘위선적인 행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경원후보의 행동이 표를 의식한 행위임을 전제하고 있으며, 진심이 없는 행위로 전제하고 있다.

2. ‘영화 <도가니>’ 트위터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 범주화, 과어휘화, 전제분석을 중심으로

영화 <도가니> 트위터는 그 성격이 다양하게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처음에는 영화에 대한 감성적 평가들이 나타났고, 이어서 사건에 대한 분노의 감정들이 분출되었으며, 다시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적극적 개선의 요구로 나타났다.

‘도가니’와 관련된 트위터는 앞서 서울시장선거와 마찬가지로 매우 갈등적인 양상을 보인다. 한편 이 경우 대결의 측면보다 개선을 향한 행동 촉구의 측면이 두드러지나, 그 행동의 변화에 대한 근거로 작용하는 기호들은 대체로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1) 범주화 분석

〈표 4〉 도가니 트위터 범주화

		감정적 평가	이성적 판단, 근거	구체적 행동의 촉구
가해자에 대한 감정적 반응	영화에 대한 반응	억울하다, 분노가 치민다, 살인 충동, 극장 안은 욕과 분노의 도가니 공분의 도가니, 멈추지 않는 눈물, 먹 먹한 가슴, 통곡, 탄식, 피, 교사로서 부끄러워진 하루	권력자는 정의로울 수 없는가, 진실은 충격이고 아픔	
	사건의 원인	제도적 모순	일사부재리의 원칙, 법의 한계, 작년에도 19억원 지원, 포폴리즘	
		부정부패	재단 교직원들 비리, 사학비리와 부패, 사립학교 폐단의 절정	
		방관/침묵	미온적 태도를 보인 교육기관에 분노해야	한국교회가 감독해야 할 일
	가해자에 대한 반응	가해자 개인	집승보다 못한 것들, 사람도 아닌 것들, 더러운 낯짝, 인간 쓰레기들, 재활용도 안되는 인간폐기물, 징그러운 괴물, 변태 쓰레기같은 것들, 교장 개새끼 아니 개만도 못함, 찢어죽일 새끼들, 개만도 못한 잡놈들, 숨방망이 처벌, 교장새끼 물리적 거세시켜야, 능지처참과 육시, 고통스럽게 죽여야, 평생 감옥살이, 천벌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가벼운 형량, 처벌받지 않은 교사가 2명
		현 사회	쓰레기 나라, 광란과 분노의 도가니	
	사건의 해결 노력	분노가 모여 파도		나 또한 움직임을 보이리라, 방관만은 하지말자, 뿌리채 뽑아버려야, 지켜내봅시다, 도가니 방지법

한국 사회 확장 논의	성범죄의 권력성		나경원같은 사람의 딸이 당할까, 돈이면 다 해결되는 세상, 법 위에 돈있는 세상	성폭력은 권력의 문제, 법원의 판결이 누구편에 서 있는지, 제도화 되어버린 범죄	
	사건의 확장	가해자 범주의 확장	약속 안 지킨 암덩어리, 도가니 가해자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도가니는 현재 진행형, 동두천 주한 미군 10대여성 성폭행사건, 이 사회의 기득권층	
		피해 대상의 확장	나영이 사건의 회상, 선거마다 약속 지키라는 학생들, 장애인인권유린, 인권유린, 성폭행, 학교폭력, 한진 노동자	인천도가니, 인천 모 보육원에서 아동 두 명을 때려죽이고 암매장, 정치범수용소의 인권유린 실태, 10대 여성 성폭행, 강간, 변태행위	
도가니 현상 평가	도가니 열풍에 대한 반응		단순한 바람, 시끄럽게 떠들었다, 아이들만 아프게 들쭉서 놓고 반짝 일어나는 열기, 대충 지껄이는 사람, 도가니는 뒷북, 6년 지난 지금은 별때처럼, 냄비국민, 냄비근성, 분기탱천	각성한 시민, 열풍자 체만 주목하는 이들, 도가니열풍에 가려져 버린 다른 사회 문제	장애인 인권에 대해 더 깊은 논의, 여가부성폭력피해 농성자

영화 <도가니> 트위터는 ‘영화에 대한 반응’ ‘사건의 원인’ ‘가해자에 대한 감정적 반응’ ‘사건해결 노력’ ‘성범죄의 권력성’ ‘한국사회의 확장논의’ ‘분노에 대한 평가’ 범주로 구분된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 범주는 ‘가해자에 대한 감정적 반응’ ‘한국사회의 확장 논의’ ‘도가니 현상 평가’다.

첫째, ‘가해자에 대한 감정적 반응’ 범주는 하위범주들로 ‘영화에 대한 반응’ ‘사건의 원인’ ‘가해자에 대한 반응’ ‘사건의 해결 노력’ 범주로 분류된다. <표 4>에 따르면 영화 관객들의 반응이 다양한 기호들로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들 기호들의 성격은 다분히 감정적이다. 대부분 분노에 관한 것이고, ‘먹먹한 가슴’ ‘통곡’ ‘탄식’ ‘교사로서 부끄러워진 하루’ 등의 기호로 구성된다. 트위터 이용자들은 영화를 통해 사건을 다시 해석하게 되는데, 영화 속 비극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제도적 모순’ ‘부정 부패’ ‘방관과 침묵’ 등의 범주로 구분한다. 사건의 원인을 제도적 모순에

있다고 보는 범주에서는 ‘언론, 사법, 정부기능의 무능’ 같은 ‘무능’ 관련 기호들이 나타나며, ‘포퓰리즘’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사건의 원인이 부정부패에 있다고 보는 범주에서는 본격적으로 ‘사학비리와 부패’ ‘사립학교 폐단의 절정’의 기호들을 통해서 이성적 판단의 근거를 제시한다.

둘째, ‘한국사회의 확장 논의’ 범주는 사회가 가진 모순성을 지적하는 하위범주들로 나타난다. 우선 성범죄의 권력성을 문제로 삼으면서 성범죄를 계급적 피해로 바라보는 기호들이 나타난다. ‘나경원 같은 사람의 딸이 당할까’ ‘돈이면 다 해결되는 세상’ ‘제도화 되어버린 범죄’ 등의 기호들은 사회적 모순성과 계급적 갈등을 극대화 한다.

그러나 도가니 열풍을 보는 범주는 회의적으로 나타난다. ‘단순한 바람’ ‘시끄럽게 떠들었다’ ‘아이들만 아프게 들쭉서 놓고’ ‘반짝 일어나는 열기’ ‘대충 지껄이는 사람’ ‘도가니는 뒷북’ ‘6년 지난 지금은 별뿔처럼’ ‘냄비국민’ ‘냄비근성’등의 기호들로 비판론을 제시하고 있다.

2) 과어휘화 분석

〈표 5〉 도가니 트위터 과어휘화

		감정적	이성적
영화 내용		분노가 치민다. 살인 충동. 극장 안은 욕과 분노의 도가니, 내가 부끄러워진 하루, 멈추지 않는 눈물, 먹먹한 가슴, 통곡, 탄식	진실은 충격적이고 아픔
실제 범죄 사실	가해자	짐승보다 못한 것들, 사람도 아닌 것들, 더러운 낯짝, 인간 쓰레기들, 재활용도 안되는 인간폐기물, 징그러운 괴물, 변태 쓰레기같은 것들, 교장 개새끼 아니 개만도 못한, 찢어죽일 새끼들, 개만도 못한 잡놈들, 숨방망이 처벌	불법 부정부패, 재단 교직원들 비리, 사학비리와 부패, (정부가 작년에도 19억을 지원했던 부조리들)뿌리채 뽑아버려야
	피해자	분노가 모여 파도	지켜내봅시다, 방관만은 하지 말자, 스스로 지켜야
한국사회의 현실		쓰레기 나라, 광란과 분노의 도가니	도가니는 현재 진행형, 법원의 판결이 누구편에 서 있는지, 제도화 되어버린 범죄

극복방안	물리적 거세, 능지처참과 욕시, 고통스럽게 죽여야, 평생 감옥살이, 천벌	도가니 방지법
현상에 대한 평가	단순한 바람, 시끄럽게 떠들었다, 아이들만 아프게 들쑤서 놓고, 반짝 일어나는 열기, 대충 지껄이는 사람, 도가니는 뒷북, 6년 지난 지금은 별뿔처럼, 냄비국민, 냄비근성, 분기탱천	각성한 시민, 열풍자체만 주목하는 이들, 도가니열풍에 가려져버린 다른 사회 문제

트위터는 일종의 공론장이나 대안언론으로 여겨지는데, 이른바 ‘도가니 사건’의 경우 트위터 여론이 정책의 입안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트위터에서 숙의의 공간이 열리고 있는지는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특성을 파악해 볼 때 더욱 분명해진다.

영화 <도가니> 트윗의 기호를 분석했을 때 감성을 표현하는 기호들이 두드러졌다. 다만 서울시장선거와 같이 정치적 맥락이 작용하는 트윗에 비해서, 영화라는 문화장르의 트윗에서는 감정표현들이 매우 직접적으로 표출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영화를 통해 사회 부조리가 제기되고 극복 방안이 제시되는 일종의 여론형성 과정에서 보았을 때, 영화 <도가니> 트윗은 대체로 ‘가해자에 대한 분노’ 기호들로 가득 찼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해자들에 대한 분노의 기호들은 ‘짐승보다 못한 것들’ ‘사람도 아닌 것들’ ‘더러운 낮썹’ ‘인간쓰레기들’ ‘재활용도 안되는 인간폐기물’ ‘징그러운 괴물’ ‘변태 쓰레기 같은 것들’ ‘교장 개새끼 아니 개만도 못함’ ‘찢어죽일 새끼들’ ‘개만도 못한 잡놈들’ 등 과격한 욕설이 대부분이다.

반면에 이러한 감정적 대응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호들도 많이 나타나는데, 이른바 도가니 열풍에 대한 회의적인 기호들이 많이 나타났다. ‘단순한 바람’ ‘아이들만 아프게 들쑤서 놓고’ ‘반짝 일어나는 열기’ ‘대충 지껄이는 사람’ ‘도가니는 뒷북’ ‘6년 지난 지금은 별뿔처럼’ ‘냄비국민’ ‘냄비근성’ 등 기호들이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불법 부정부패’ ‘재단 교직원들 비리’ ‘사학비리와 부패’ ‘도가니는 현재 진행형’ ‘제도화 되어버린 범죄’ 등 기호처럼 문제의 원인을

이성적으로 추구하는 기호들은 많이 표출 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트위터의 여론은 특정한 정책 방향성을 가진 ‘숙의’보다 ‘민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전제분석

〈표 6〉 도가니 트위터 전제

	전제
성범죄의 패륜성	교장새끼 물리적 거세시켜야, 성폭행하는 놈들 평생 감옥살이도 모자랄 판에 감옥에서 밥도 주잖아, 짐승들에게 천벌을 내리시길 기도함, 인간 쓰레기들, 재활용도 안되는 인간폐기물
학교와 사회의 역할	더러운 학교, 재단 교직원들 비리를 저지를 수 없게 사회적 제도 구축이 필요, 수수방관하던 경찰, 장애인인권유린, 인권유린, 성폭행, 학교폭력, 교사로서 내가 부끄러워진 하루
우리 사회의 현실	평상시의 우리나라 언론, 사법, 정부기능의 무용, 무능, 포폴리즘 백일하에 드러낸 것, 거짓과 불의, 미군의 10대 여성 성폭행, 강간, 변태행위, 약속 지키라는 학생들에게 쏜 물대포, 인천 도가니, 법원의 판결이 누구편에 서 있는지, 솜방망이 처벌, 냄비근성, 열풍 자체만 주목하는 이들

영화 <도가니> 트위터의 전제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분노의 전제다. 여기서 트위터 이용자들이 분노를 느끼는 이유는 성범죄의 패륜성에 있다. 사건의 피해자는 아동이며 여성이며 장애인이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자에 해당하는 집단이며 그들에 대한 성적 가해는 파렴치한 행위로 인식된다. 따라서 가해자들에 대한 공격은 ‘교장새끼 물리적 거세시켜야’ ‘인간쓰레기들’ ‘재활용도 안되는 인간폐기물’ 등의 감정기호로 나타난다.

둘째, 학교구성원을 지켜내야 한다는 전제다. 트위터 이용자들은 아동 장애인 성폭행 사건이 학교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매우 충격을 받았다. 이는 학교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보호하는 공간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러한 전제는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장이 되는데, 우리 사회 역시 약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한

다고 전제하고 있다. 때문에 약자를 보호하지 못한 ‘더러운 학교’는 ‘수수 방관하던 경찰’과 더불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존재로 전제된다.

셋째, 우리사회의 현실적 모습이 이상적 양태와 매우 거리가 있다는 전제다. 트위터는 현실의 모순에 대해 항의하며 분노하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가 다양한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제다. 이러한 전제는 현실에 대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현상에 대한 회의로까지 이어진다. ‘냄비근성’ ‘열풍 자체만 주목하는 이들’ 등의 기호로 표출되어 구조적 모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패배주의적 전제로 연계된다.

3. 권력비리 트위터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 범주화, 과어휘화, 전제분석을 중심으로

권력비리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상당부분 감정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권력비리의 원인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최고 권력기관의 부패를 들고 있기 때문에, 권력비리 기호들은 대체로 인물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이나 공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기호의 범주 역시 비판 대상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제 역시 지속적인 부정부패에 대한 기정사실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1) 범주화 분석

〈표 7〉 권력비리 트위터 범주화

		대통령과 청와대	비리 당사자	검찰
감정 표현	분노	부패는 덮을 수록 냄새가 오래간다, 국민을 우롱, 농락, 국민에 원성, 국민의 분노	범죄자 사기꾼 놈	경악, 개 같은 검찰, 개판, 죽일 X들
	희망	읍참마속, 충언, 철저수사, 대안, 진상조사위원회, 대처, 정의, 상식		거악의 척결, 권력비리 처단에 만전
	비아냥	좋은 소식, 부정부패 선수권 대회 , 생쇼, 호흡 척척, 위약, 가가, 위박이, 나랏님	화수분, 마법의 통장	참 신중한 그 깃 귀여운, 정의 창조, 대단한 옛장수 맘대로, 3류

		친인척 비리, 양아치 쥐들, 도둑놈 집		양아치, 똥개, 쥐똥개, 견찰, 똥검, 개검, 똥 검, 검새, 공범, 색검
의혹제기		이명박 사돈 저축은행 배째 라, 비리 생활화, 의심, 의혹, 실체, 몸통, 신재민 불똥, 제 발 저리는 친인척 비리가 또 한 건 추가	확인, 신병성, 수상한 재산증식, 깃털 게이트, 폭로, 진상, 증빙자료, 측근비리 2대 의혹	검찰 이국철 폭로 덤프나
평가 및 분석		청와대 반발로 실패, 불법 과 비리로 얼룩진, 3재, 침 몰, 레임덕, 언론장악, 욕심, 면죄부, 눈감고 아웅, 청와 대 책임, 꼬리 자르기, 변명, 청와대가 고단위 필수, 거 짓말, 채 뿌리기, 강도범, 불 법, 범죄자, 도둑놈, 자수, 비리 면직 공직자 1천명 넘 어, 정권말기 현상, 임기말 내우외환	의미없는 수사, 로비, 단죄, 구속, 처벌, 광주일고 게이트	부패, 노년 재테크 혼란, 사건 수사 난 항, 표적수사, 한상 대가 썰드쳐주니까, 덤프다, 수사의지 의 심, 슬며시 처리, 야 권 숙청 작업, 감옥, 심판, 표적수사 날 조

<표 7>에서처럼 권력비리에 대한 범주는 ‘감정표현’ ‘의혹제기’ ‘평가·분석’ 범주로 구분된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권력비리 트위터는 저축은행이나 신재민, 이국철의 키워드로 검색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빈도가 높고 다양하게 나온 기호는 대통령과 관련된 기호들이라는 점이다.

먼저 ‘감정표현’ 범주에서 본다면, 주요 대상이 대통령과 청와대다. 권력비리 트위터는 국민들의 분노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비아냥거리는 기호들이 주로 등장하는데, 비리 의혹은 ‘좋은 소식’이라고 역설적으로 표현하거나, ‘부정부패 선수권 대회’ ‘생쇼’ ‘호흡 척척’ ‘쥐악’ ‘쥐박이’ ‘양아치 쥐들’ ‘도둑놈 집’ 등 욕설기호들로 이루어진다. 가끔 ‘가카’나 ‘나랏님 친인척 비리’처럼 기준에 사용하던 존칭어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모두 대통령을 비아냥거리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들 기호들의 반복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나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 이명박 정부의 부정과 부패를 기정사실화 한다.

‘감정표현’ 범주에서 대통령과 청와대만큼이나 비난의 기호로 묘사되는

기관으로 ‘검찰’이 등장한다. 검찰의 행위에 대해 ‘경악’ ‘개같은 검찰’ ‘개판’ ‘죽일 X들’ ‘3류 양아치’ ‘쥐똥개’ ‘견찰’ ‘떡검’ ‘색검’ 등 직접적인 욕설기호로 표현한다. ‘권력비리’ 범주에서의 ‘평가 및 분석’의 하위범주 기호들은 대체로 감정표현에 있어 비난감정에 기반하고, 의혹으로 제기된 부분을 기정사실화 하는 경향이 크다. 대통령 및 청와대에 대한 부정적 감정들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비난의 평가를 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평가의 근거로 제시되는 것들은 일부 뉴스 기사였지 트위터 이용자들 스스로가 제시한 논거는 아니었다. 해당 기호들은 ‘불법과 비리로 얼룩진’ ‘레임덕’ ‘눈감고 아웅’ ‘꼬리 자르기’ ‘청와대가 고단위 꼼수’ ‘재 뿌리기’ ‘정권말기 현상’ ‘임기말 내우외환’ 등으로 대통령의 임기말 현상을 적시하고 있다.

2) 과어휘화 분석

〈표 8〉 권력비리 트위터 과어휘화

		사건 자체	사건의 이면
비리내용		저축은행 사건, 신재민, 이국철 리스트, 상납, 대통령 이름 팔아, 인천공항 매각, 한선교 도청 사태, 로비스트, 수년 간 뇌물 제공, 불법 대출	친인척 비리, 측근 비리, 부정부패, 청와대, 권력형 비리, 집권초 언론장악
비리 행위의 주체		신재민, 이국철, 검찰, 떡검, 색검, 김윤옥 여사 형부의 동생, 정권실세, 이명박 사돈	대통령, MB, 쥐박이, 나랏님, 광주일고 게이트
비리 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벌	조사	검찰 소환,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돌변, 개 한 마리, 한상대 뭐하냐, 대주주 소환, 진사조사 위원회	(수사를) 덮다, 표적 수사, 대북 이슈로 덮어보려는 꼼수, 생쑈, 청와대와 검찰의 조율, 의미없는 수사
	처벌	어떻게 마무리 될지, (검찰)더 수사할 것 없다, 떡검 풀리는 대로	대기업에 돈받고 비리 묵인, 검찰이 귀여운 이유
비리에 대한 정부 반응		공정사회, 측근 비리에 선제 대응, 처음으로 깨긋한 정권, 측근 비리는 더 엄격히 다뤄야, 이국철 배려 없었다, 저극 해명, 권력비리 특단 대책	홍준표 대표의 방북 계획
비리에 대한 국민 반응		국정감사, 철저히 조사, 대책, 의혹	레임덕, BBK, 신재민은 것

	제기, 대가성인지 아닌지 궁금, 수사해야, 세금 낭비, 친인척님 비리 또 한 건 추가, 비리의 종결, 4대강 망국 사업, 창고엔 쥐들만, 국가가 아니고 도둑놈 집단, 투명 비리, 정권 심판론, 인간의 탈을 쓴 개보다 못한 XX, 없어야 할 정권, 옛장수 맘대로	털 몸통 밝혀야, 쥐박이 비리, 권력비리 은폐해주는 게 검색의 임무
--	---	---------------------------------------

권력비리 트위트의 주된 기호들은 비리행위에 대한 평가에 집중된다. 대부분의 기호들은 비리 행위 자체보다 최고 권력인 대통령과의 연계를 기정사실화 하며 비난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비리행위’와 관련된 기호들을 살펴보면, 비리행위 기호, 비리주체 기호, 처벌 기호, 정부반응 기호, 국민반응 기호 등으로 구분된다. 비리주체 기호들은 ‘신재민’ ‘이국철’ ‘검찰’ ‘떡검’ ‘색검’ ‘김윤옥여사형부의 동생’ ‘정권실세’ ‘이명박 사돈’이다. 부정부패의 배경을 표현하는 기호들은 ‘대통령’ ‘MB’ ‘쥐박이’ ‘나랏님’ 등으로 표출된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비리 행위에 대해서 가장 거대한 권력이 대통령이며, 이를 감시하는 검찰마저도 비리의 대상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검찰에 대해서 ‘표적 수사’ ‘대북 이슈로 덮어보려는 꼼수’ ‘생쑈’ ‘청와대와 검찰의 조율’ ‘의미없는 수사’ 등의 기호로 불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한편 정부반응도 기호로 제시되고 있는데 ‘공정사회’ ‘측근 비리에 선제 대응’ ‘처음으로 깨끗한 정권’ ‘측근 비리는 더 엄격히 다뤄야’ ‘이국철 배려 없었다’ ‘적극 해명’ ‘권력비리 특단 대책’등으로 대부분 뉴스기사들을 옮겨왔으며, 비아냥 기호들이 대부분이다.

권력비리 트위트의 핵심은 국민들의 권력에 대한 불신이다. ‘국정감사’ ‘철저히 조사’ ‘대가성인지 아닌지 궁금’ ‘수사해야’ 같은 이성적인 대책 요구도 나타나지만, 대체로 ‘세금 낭비’ ‘친인척님 비리 또 한 건 추가’ ‘비리의 종결’ ‘4대강 망국 사업’ ‘창고엔 쥐들만’ ‘국가가 아니고 도둑놈 집단’ ‘투명 비리’ ‘정권 심판론’ ‘인간의 탈을 쓴 개보다 못한 XX’ ‘없어

야 할 정권’ ‘옛장수 맘대로’ 등 과격한 기호들이 많이 등장한다.

3) 전제분석

〈표 9〉 권력비리 트위터 전제

	전제
권력비리의 핵심	신재민은 깃털 몸통 밝혀야, 로비스트, 쥐박이 비리, 이명박 사돈 저축은행 배째라, 청와대가 고단위 꿈수, 부정부패 선수권 대회, 생쇼, 호흡 척척, 쥐악, 가카, 쥐박이, 나랏님 친인척 비리, 양아치 쥐들, 도둑놈 집
수사기관의 역할	부정부패, (수사를)덮다, 견찰, 권력비리 은폐해주는 게 검색의 임무, 옛장수 맘대로, 3류 양아치, 야권 숙청 작업, 심판, 표적수사, 날조
정부의 역할	비리 면직 공직자 1천명 넘어, 불법과 비리로 얼룩진, 공정사회, 권력비리 특단 대책

권력비리 트위터의 전제는 세 가지다. 첫째, 권력비리의 핵심은 대통령이라는 전제다. ‘신재민은 깃털 몸통 밝혀야’ 등의 기호는 비리의 핵심이 대통령임을 전제한다. 이들 기호들은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대통령과 같은 교회에 다니는 로비스트, 정부의 전 차관 등이 적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사건의 이면을 추측하는 기호 등에서는 정권 출범 초기의 ‘BBK’ 기호가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권력비리에 있어서 최초부터 연원이 있었음을 전제하고 있으며, 현 정권 자체를 비리 정권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수사기관은 국민이 아닌 정치권력을 위한 존재라는 전제다. 검찰에 대한 불신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 검찰의 수사행위를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검찰이 청와대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함을 전제한다. 아울러 ‘권력비리 은폐해 주는 게 검색의 임무’라는 기호는 정치권력을 옹호하는 검찰의 역할을 전제한다. 이러한 연유로 권력의 주구라는 의미로서 ‘개’나 ‘견찰’ 등의 기호들이 자주 등장한다.

셋째, 정부 역할은 부정부패를 막는 것이라는 전제다. 앞의 두 전제들은 결과적으로 ‘정부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막아야 하고 이를 통해 사회

가 보다 공정해져야 한다’는 전제로 이어진다. 권력비리 트윗트를 살펴보면, 대부분 정부의 역할에 대해 기대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정부에 대해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4. 경제위기 트윗트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 범주화, 과어휘화, 전제 분석을 중심으로

경제위기 트윗트는 일상 속의 개인의 상황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 한편 미디어를 통해 드러난 거시경제의 흐름에 대해 우려를 표현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경제위기 기호들은 개인적 감정의 차원에서 세계 경제의 거시적 흐름의 분석에 이르기까지 정서와 정보가 다양한 층위로 나타난다.

1) 범주화 분석

〈표 10〉 경제위기 트윗트 범주화

		감정적, 정서적 차원	정보적 차원
현실적 삶으로서 가계		88만원세대, 대전투시기, 공포감, 쥐꼬리, 서민경제 역대 최악, 파탄, 살인적인 물가, 한달살이 인생, 서민경제 개판, 서민들 숫아날 구멍이 없다, 어리버리한 개미, 쥐빨도 없는	비은행권 대출이 크게 증가, 경제위기의 뇌관, 요금인상, 서민경제 우려
거시경제로서 정부	정부 비판	주가조작, 중범죄, 사기꾼, 국민 사기극, MB정부의 본질호도, 쥐의 선방, MB OUT, 아무것도 안하는게 애국, 물값은 왜 계속 올리시나, 가가의 서민 사랑, 망언, 4대강 폐돈, 대단한 CEO 대통령, 개판 정치관, 말장난의 귀재, 민생파탄, 노동운동 탄압, 한나라당 실정, 민주당 역시 죄인, 정신없는 정치인, 흠패넬생각,	MB하 한국정부의 하락율, 인천공항 매각
	정부 옹호	반값폭탄, 언론의 자극적 농간	인플레만으로 선방한 이명박, 공정하게 재평가
세계 경제 상황		유럽발 금융위기 한국까지 상륙하나,	선진국들의 재정적자 감축,

	배후세력, 가짜 유대인, 시장 경제의 논리, 불황의 늪, 자본주의는 사망 했는가, 자본이 몰락, 갈수록 태산	유럽 재정위기, 자본주의 4.0, 유럽 경제위기
경제위기	금융시장 초토화 , 실물경기 초토화 , 요동치는 경제 , 서슬 퍼런, 최악의 한 달 , 환율 46원 널뛰기 , 혼란, 경제위기의 쓰나미 , 요동치는 주가 환율, 주택시장의 붕괴	강남 재건축 급매 속출 , 투자심리 위축 , 주가폭락 사태 , 증시의 변동폭 은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버금가
경제 정책	인플레이, 한국 최악상황 도 대비하라, 패자의 부활, 케인즈적 처방	주택가격 안정, 2011년 재정위기 , 금융위기에 대처방법 , 복지지출에 과대투자 , 엠비눔믹스

경제위기 트위터는 경제의 초점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범주화 되며, 경제주체를 근간으로 ‘현실적인 삶으로서의 가계’ ‘거시경제로서 정부의 역할’ ‘세계의 경제상황’ ‘경제 정책’ ‘경제 위기’등 다섯 범주로 구분된다.

우선, ‘현실적인 삶으로서 가계’범주에서는 현재의 열악한 경제상황에 대한 불안심리를 표현한 것들이 많다. ‘88만원세대’ ‘대전투시기’ ‘공포감’ ‘쥐꼬리’ ‘서민경제 역대 최악’ ‘파탄’ ‘서민경제 개판’ ‘서민들 솟아날 구멍이 없다’ ‘어리버리한 개미’ ‘쥐뿔도 없는’ 등의 기호들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표현하고 있으며, 나아가 ‘살인적인 물가’ ‘한달살이 인생’등의 기호는 가계의 위기감을 극대화하고 있다.

‘정부 역할’에 대해서도 아주 부정적인데, 전반적으로 정부정책들에 대한 감정적인 비난이 주를 이루고 있다. ‘주가조작’ ‘중범죄’ ‘사기꾼’ ‘국민사기극’ 등의 기호는 경제를 해치는 범죄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며, 현 정부 역시 공정하지 못한 거래에 가담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이는 정부정책에 대한 비난에서도 드러나는데, ‘MB정부의 본질호도’ ‘흙퍼널생각’ ‘4대강 폐돈’ ‘대단한 CEO 대통령’ ‘아무것도 안하는게 애국’ ‘물값은 왜 계속 올리시나’ 등의 기호들은 4대강 사업을 비롯한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다. 한편 정부에 대한 비판은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이어지는데, ‘쥐의 선방’ ‘MB OUT’ ‘가카의 서민사랑’ 등 직접적인 비난도 빈번하게 등장한다.

‘세계경제상황’과 ‘우리나라의 경제위기’와 관련해서는 충격적인 기호들이 자주 나타난다. ‘불황의 늪’ ‘자본주의는 사망했는가’ ‘자본의 몰락’ ‘갈수록 태산’ ‘금융시장초토화’ ‘실물경기초토화’ ‘요동치는 경제’ ‘서슬 퍼런’ ‘최악의 한 달’ ‘경제위기의 쓰나미’ ‘요동치는 주가 환율’ ‘주택시장의 붕괴’등의 기호들이 대표적이다. 일반적인 정보차원의 기호들이 ‘선진국들의 재정적자 감축’ ‘강남 재건축 급매 속출’ ‘투자심리 위축’ ‘주가 폭락 사태’ 등으로 객관적으로 서술한 것에 비하면, 앞에서 제시한 기호들은 위기의식을 과도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표현이 트위터 이용자들의 자체 기호들이 아니라, 뉴스기사들을 재인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는 점이다.

2) 과어휘화 분석

〈표 11〉 경제위기 트위터 과어휘화

		부정적 서술	희망적 서술
위기 상황	개인	88만원세대, 대전투시기, 공포감, 쥐꼬리, 서민경제 역대 최악, 파탄, 살인적인 물가, 한달살이 인생, 서민경제 개판, 서민들 솟아날 구멍이 없다, 어리버리한 개미, 쥐뿔도 없는, 너관	
	정부 및 국가	초토화, 요동치는 경제, 서슬 퍼런, 최악의 한 달, 널뛰기, 혼란 경제위기의 쓰나미, 요동치는 주가 환율, 유럽발 금융위기, 대폭락	언론의 자극적 농간
위기 대처		과도한 복지지출, 그리스 정부의 실책, 엠비노믹스, 고환율, 재벌 프렌들리	긴축재정, 자유시장을 존중하는 선, 실효성 있는 대책, 반값 폭탄, 인플레이션으로 선방
미래 예측 및 전망		한국 최악상황 도 대비하라, 백약이 무효, 자본이 몰락, 갈수록 태산	좋은 경제학이 필요, 케인즈적 처방, 자본주의 4.0, 따뜻한 자본주의

일반적으로 경제위기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어떤 사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예측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위기 담론들은 대체로 현재 위기상황에 대한 서

술, 위기대처의 방향, 미래상황에 대한 예측으로 나타난다. <표 11>에서 트윗트는 주로 현재 위기상황을 서술하는 기호가 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개인의 차원에서 보면 현재의 가계경제의 파탄 기호들이 과어휘화로 나타나고, 정부차원에서 보면 안정되지 않는 경제상황이 과어휘화로 나타난다.

경제위기 트윗트는 전체적으로 위기상황만 제시하고 있을 뿐,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미래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지는 예측하고 있지 못하다. 기호들 역시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고, 그 빈도 역시 일회적으로 나타난다. 그나마 대처와 전망에 관한 기호들도 부정적인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경제위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서만 확대되게 된다.

3) 전제 분석

〈표 12〉 경제위기 트윗트 전제

	전제
경제위기의 보편화	88만원 세대, 어리버리한 개미, 쥐뿔도 없는, MB OUT, 개판 정치판, 민생파탄, 노동운동 탄압, 한나라당 실정, 민주당 역시 좌인, 정신없는 정치인, 비은행권 대출이 크게 증가, 경제위기의 뇌관, 요금인상, 서민경제 우려, 서민경제 파탄, 유럽발 금융위기, 자본주의 사망
위기 극복의 대안	서민경제는 범야권 만이 살릴수 있다, 엠비노믹스, 자본주의 4.0, 다뜻한 자본주의, 케인즈적 처방, 주택가격 안정, 복지지출 과대투자

경제위기 트윗트에서 전제하고 있는 바는 두 가지다. 첫째는 현재 세계 경제가 위기이며 이는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전제다. 트윗트의 내용을 보면 서민의 어려움을 드러내는 기호들이 대부분이다. 젊은세대의 빈곤을 상징하는 ‘88만원 세대’ ‘민생 파탄’ 등이다. 특이한 점은 이처럼 빈곤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강조하면서, 경제권력을 지닌 부유층에 대한 불만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자본주의적 해법을 전제로 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는 ‘자본주의 4.0’ 등의 기호

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설명 없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복지지출에 과대 투자했다’는 문제제기는 신자유주의정책을 옹호하는 입장으로 보이기도 한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케인즈식 처방의 경우에 정부의 개입을 보다 강화하자는 주장을 담고 있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이는 현 체제에서 자본주의적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유용하다고 믿기 때문이며, 여타의 해결방안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V. 결 론

이상과 같이, 트위터에서 다루었던 4가지 사회의제들에 관한 내용들을 범주화분석, 과어휘화 분석 및 전제분석을 통하여 이들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유통되는 트윗들은 연예인의 신변잡기적 사생활이나 사진 등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정책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은 시사적이고 정치적인 트윗들이다. 연구기간 동안 생산되었던 트윗의 경우 갈등적인 요소들이 많이 부각되었는데, 이는 트위터가 사회변화의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트위터를 위시한 SNS의 역할과 기능들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SNS가 사회적 의제에 대한 담론 생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우리사회의 주요의제들에 대해 SNS가 사회의제들에 대한 공적 담론의 한 영역을 담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SNS의 사회의제들에 대한 공적 담론은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정적이라는 점이다. 트위터에서 소통되는 내용들을 근간으로 볼 때, 주요 사회의제들에 대한 비난담론은 아주 신속하게 구성되고 확산되나, 이성적

인 담론은 별반 드러나지 않았다. 이성적 담론이 일부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일부 언론의 기사들이나 정보들을 인용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트위터 이용자들의 자체 생산의 이성적 담론은 아니었다. 바로 이 점이 많은 연구자들이 SNS의 제한점으로 거론하는 한계점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서, 글자 수의 제한과 감성적인 속성이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셋째, SNS의 지향성이 특정 방향을 향하고 있고, 그 방향은 주로 진보적이고, 반권력적이며, 노동계급적이고 친서민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현재의 한국적 상황에서 SNS의 위치지움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사회에서 SNS의 위치는 중립적인 위치가 아니라 진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수나 권력층 및 자본가 집단들은 SNS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우려하면서 경계하나, 반대로 진보집단이나 노동 계급 및 서민층은 SNS의 역할과 기능을 반기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젊은 층이 SNS의 주요 사용자인 데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그 이용자층이 10대에서 40대 이상을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보수 일변도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의견에 대한 소통의 요구인 셈이다.

넷째, SNS의 기호들은 현상에 대한 지적이나 평가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앞에서 설명했던 비이성적 담론의 기제와 연계되는 점인데, SNS가 감성적인 매체이면서 동시에 현재의 현상에만 주목하는 매체라는 점이 강조된다. SNS에서는 현재 전개되는 현상에 주목하고 다양한 감성적인 표출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지,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대책 등은 주목하지 않는다. 이는 SNS의 매체적 속성이 ‘현실성’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현실에 주목하는 매체라는 의미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SNS는 아직은 미완의 커뮤니케이션 매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가 단순한 감정상의 교류이거나, 멘트자나 팔로워 관계에 입각한 제한적인 매체라는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 그 대신 SNS는 우리사회의 주요 의제들에 대한 공적 담론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으며, 그에 따른 매체적 역할이 기대된다. 문제는 SNS가 이성적인 매체가 아닌 감성적인 매체이고, 진보 진영과 노동계급과 서민 지향의 매체적 속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으며, 현실적 현상에만 주목하고 있으며, 미래의 전망이나 대책을 강구하기는 소홀하다는 제한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들 제한점들을 보완한다면 SNS는 기존 매체들과는 전혀 다른 대안적 매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후속 연구에 있어서 단기적인 사안 중심의 분석보다 장기적인 사회변화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한다면, 트위터의 대안적 역할과 기능이 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병선 (2010). 「사회적 네트워크 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에서 사용되는
공손 전략에 관한 탐색적 연구: 트위터를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총』, 제29
집 1호, 57-88.
- 김종길 (2006). 「시민참여 미디어로서의 인터넷 토론방: 가능성과 한계」, 『담론
201』, 9권 3호, 33-73.
- 박노일·정지연 (2011). 「리트윗은 누가 왜 하는가?: 리트윗의 동기 요인과 리트윗
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분석」, 『미디어 경제와 문화』, 제9권 3호, 95-131.
- 백선기 (1995). 『보도의 기호학』, 성균관대 출판부.
- ____ (1997). 『한국 선거보도의 기호학』, 커뮤니케이션북스.
- ____ (2002). 『텔레비전 문화의 기호학』, 커뮤니케이션북스.
- ____ (2005). 『전쟁보도와 미디어 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 ____ (2007a). 『미디어 그 기호학적 해석의 즐거움』, 커뮤니케이션북스.
- ____ (2007b). 『영화 그 기호학적 해석의 즐거움』, 커뮤니케이션북스.
- ____ (2010). 『광고의 기호학』, 커뮤니케이션북스.
- 설진아 (2009). 「소셜미디어의 진화양상과 사회적 영향」. 2009년 한국언론정보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특별세션 Social Communication Media의 의미와
영향.
- 신현기·우지숙 (2010). 「트위터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담론 활동에 대한 탐색적
연구: 2010년 6·2 지방선거 관련 트윗글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가을호, 10권 3호, 45-76.
- 양선희 (2008). 「새로운 미디어환경과 의제설정 효과」, 『한국언론학보』, 제52권,
4호, 81-104.
- 윤영철 (2000). 「온라인 게시판 토론과 속의 민주주의」, 『한국방송학회』, 11권
2호, 109-150.
- 이광석 (2010). 「선거와 뉴미디어」, 『문화과학』, 2010년 가을호, 124-139.
- 이동훈 (2010). 「온라인 개인 미디어 공론장의 구조적 재개념화 연구: 소셜 미디어화
현상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가을호, 110-145.
- 이미나·김활빈·김옥현 (2011). 「리트윗에 대한, 리트윗에 의한: 리트윗 행위 결정에
대한일반 모델」, 한국언론학회 가을 정기학술대회 발표 논문, 1-29.
- 이창호·정의철 (2009). 「공론장으로서의 인터넷 카페 게시판의 가능성과 한계」,

- 『언론과학연구』, 9권 3호, 388-421.
- 조희정 (2010). 「소셜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정치참여와 선거규제의 과제: 트위터의 정치적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
- 최민재·김위근 (2008). 「포털사이트 뉴스서비스의 의제설정 기능에 관한 연구 : 제공된 뉴스와 선호된 뉴스의 특성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0권, 4호, 437-463.
- 최영재 (2008). 「인터넷 공론장의 가능성과 속의 민주주의」, 한국언론정보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
- 최진호·한동섭 (2011). 「정치인 트위터와 신문·방송뉴스의 의제 상관성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11권 2호, 501-532.
- 한혜경 (2006). 「인터넷 이용자의 시민적 자질들과 가상공간의 속의 경험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19권 4호, 601-643.
- Bakshy, E., Hofman, J. M., Mason, W. A., & Watts, D. J. (2011). "Everyone's an influencer: quantifying influence on Twitter", *Proceedings of ACM Web Search and Data Mining 2011*.
- Boyd, D. M. & Ellison, N. B. (2007). Social network sites: Definition, history, and scholarship.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3(1), 210-230.
- Java, A., Song, X., Finin, T., & Tseng, B. (2007). "Why we Twitter: understanding microblogging usage and communities", *Proceedings of Joint 9th WEBKDD and 1st SNA-KDD Workshop 2007*.

Sings of the Social Network Service(SNS), and their semiotic natures and meanings: A Semiotic analysis on contents of SNS about societal agendas

Seon-Gi Bae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cern mainly signs of the Social Network Service (SNS) about important societal agendas and investigate their meanings implied in the society. The SNS has become a kind of public medium about societal issues though it was started as a sort of private or individual medium about individual issues.

In order to attain its purpose, the author raised several research questions; ‘what were categories for signs of the SNS about specific societal agendas?’, ‘what were over-lexicalized in those signs?’, ‘what were pre-supposed under such signs?’ and ‘what were implied in Korean society by such signs?’. For answering these research questions, he selected four agendas as specific societal agendas, and collected about 800 tweeted contents in the Twitters for them. The retweeted contents were analyzed by several semiotic research methods; ‘categorization analytic method’, ‘over-lexicalized research method’, and ‘pre-supposition research method’.

As som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firstly found that the contents of Twitter could function to produce public discourses about specific societal agendas. Secondly, it was found that such contents of the Twitter could produce public discourses with emotional signs. The public discourses were normally categorized as emotional criticts against some societal agendas without any kinds of rationality. Thirdly, the public discourses in the Twitter would be seemingly progressive, anti-ruling party, labor-class favored and pro-civilian oriented. Forthly, it was found that such signs of SNS would

concern mainly on present societal phenomena rather than on their causes or reasons.

Finally, it was concluded that the SNS was not able to be an absolute medium for public discourse but an uncertain one with emotional signs for public discourse.

열쇠어: SNS, 트위터, 사회의제, 기호학적 분석방법, 함축의미

SNS, Twitter, Societal agenda, Semiotic research methods, implied meanings

투고일 : 2011.11.5 / 심사일 : 2011.12.13 / 심사완료일 : 2011.12.18